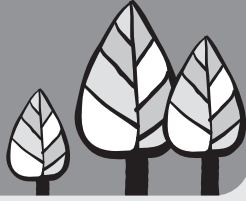


축산
소식



한우

한우고기 부위별 · 요리별
맛예측가능
농진청, 소비자 식미만족도
반영 연도관리시스템 개발

한우고기에 대한 연도관리시스템이 개발돼 업계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에 부위별, 요리방법별로 소비자의 식미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맛 점수를 산출한 자료를 근거로 조리방법과 부위별 연도관리 시스템(맛예측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이 2006년부터 4년간 전국단위 4,6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 관능평가를 실시해 쇠고기 맛 결정가중치(연도 55%, 다즙성 18%, 향미 27%)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한 한우고기 10개 부위에 대해 총 540개 맛점수 계산식을 산출하고, 전산프로그램화해 자동으로 맛점수를 부여하며 점수에 의해 '보통', '우수', '매우 우수'로 표시토록 했다.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숙성실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숙성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데, 숙성실의 온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성기간에 따라 '별'의 숫자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우유통을 하는 한육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는 대부분이 4주 이내에 소비되므로 '별'의 숫자가 하나에서 네 개 사이일 것인 반면, 수입쇠고기는 최소 4주가 경과돼 '별'이 다섯 개 이상 표시될 텐데, 이와 같은 '숙성기간에 근거한 연도보증시스템'은 국내 한우비육산업을 위한 제도인지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 이동일 · dilee@chuksannews.co.kr

양돈

양돈농가 월 5% 이상 도매
시장 출하' 결의
양돈협회, 돼지고기 가격
안정 위해 만장일치로



양돈농가들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7월 7일 제 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양돈농가에서 월 5%이상을 의무적으로 도매시장에 출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양돈협회 이사들은 "최근 고돈가의 주요 원인이 국내 돼지고기 가격을 결정하는 도매시장 출하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판단 된다"며 "이를 개

선하기 위해 각 양돈농가에서 월 출하물량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매시장에 출하, 돼지고기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수입육 무관세 공급 확대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 할 수 없고, 향후 수입육의 국내 시장 잠식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농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도매시장 출하시 육가공 공장보다 두당 3만원씩의 적자를 감소하면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농가들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전국 120개 지부를 통해 오는 8월 12일까지 ‘월 출하물량 5% 도매시장 출하하기 운동’ 캠페인 동참을 홍보하는 동시에 각 도협의회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매시장에 돼지출하를 독려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1만두 이상 대군농가 역시 돈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월 출하물량의 20%를 도매시장에 출하할 것을 결의하는 등 양돈농가 차원의 범 돈가 안정 캠페인이 펼쳐질 계획이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포크플레이션(Pork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구제역 파동 이후 돼지고기값이 사상 최고의 강세를 보이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주목받는 등 정부 당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돼지고기 가격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이번 캠페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현재와 같은 고돈가가 계속 이어질 경우 1차 육가공 업체의 피해 확산 및 유통, 외식업계의 수입육

전환 등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의 급격한 축소가 우려된다”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양돈인들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며 양돈농가들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길 호소했다.

축산경제 • 한정희 기자 • penery@chukkyung.co.kr

양계

홍삼 먹고 '알' 쑥쑥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홍삼엑기스를 추출하고 남은 홍삼박을 산란계 사료에 혼합해 급여한 결과, 산란율이 증진되

고 닭의 면역성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홍삼박은 연간 약 700톤 정도 생산되고 홍삼박 내에는 사포닌을 구성하는 성분이 상당 부분(Rb1과 Rg1, 0.35mg/g) 남아 있어, 일부 농장에서 가축사료로 활용돼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홍삼박의 사료 가치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해, 산란계 사료에 홍삼박 3%를 섞어 8주간 급여한 결과, 산란율이 6% 향상됨을 밝혔다. 단순히 사료비와 조수입만을 기준으로 경제성 계산했을 때, 산란계 한 마리 당 185원(8주 기준)의 추가이익이 발생했으며, 5만수 규모 농장의 경우는 연간 약 3천만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



[단식투쟁 6일째] 7차 협상 격론 끝 결렬

여의도 농성장, 집유거부 투쟁 준비로 분주

원유가 협상이 진흥회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낙농진흥회에서 개최된 7차 원유가협상이 정회, 속개를 반복하며, 격론이 벌어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또다시 결렬되었다.

이날 협상에서는 60원, 81원의 진흥회안이 제시되었다. 협상 40일만이다. 당초 진흥회는 중재안을 '내놓겠다, 못 내놓겠다', '1,080까지 진흥회 안이 있다'고 밝혀와 낙농가들을 분노케 했다. 생산자측 협상대표들은 진흥회 제시안을 듣고 허탈해하면서 진흥회가 계속적으로 현장실정을 무시한다면 굳이 협상장을 진흥회에 꾸릴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날 생산자 대표들은 협상이 난항을 겪자, 원유가 현실화 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목장경영 안정이 우선임을 재차 밝히고 수지가 맞지 않는 우유는 생산할 수 없다며, 수요자측 대표들에게 목장현장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양측이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수요자측은 생산자가 요구한 목장경영 실태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진흥회 제시안 수준 이상으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8월 5일이 협상마감시 한임에도 양측은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7차 소위원회가 마무리되었다. 집유거부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날

협상장에는 농식품부가 배석해 정부가 중재할 것이 있다면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한 채 회의 내내 무겁게 자리를 지켰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곧장 '꼭 죽어봐야 저승 맛이 아나!'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전면적인 집유, 납유거부 투쟁으로 접어들겠으로 단순히 원유가 현실화문제 뿐만 아니라, FTA를 비롯한 정부의 낙농정책 실패, 낙농진흥회의 철폐문제, 유단순히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낱낱이 밝히고 반드시 책임 지을 것이라고 정부, 진흥회, 유업체에 강력히 경고했다.

단식농성 6일째 여의도 단식농성장은 굶은 낱씨와 휴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낙농지도자들의 지지방문이 줄을 이었다. 특히 충북지역 낙우회장단, 평택지역 낙우회장단은 농성장을 찾아 이승호 회장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협회 중앙회 지침에 따라 8월 3일 집유거부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히고, 이번 기회에 오만방자한 정부와 진흥회, 유업체에 낙농가들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8월 3일 전국적인 집유거부 투쟁이 임박한 가운데, 농성장에는 언론사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집유거부 투쟁이후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라이브뉴스 · 곽동신 · al@livesnews.com



양봉농가 골칫거리 '꿀벌응애' 친환경 약제로 해결

농진청, 꿀벌응애 방제용 친환경 훈증 · 훈연제 개발

농촌진흥청은 꿀벌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 먹어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꿀벌응애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훈증제 및 훈연제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훈증제는 감귤 껍질에 많이 있는 리모넨, 식물성 오일인 식용미네랄오일(FGMO), 허브식물에서 추출한 티몰, 꿀벌의 접촉 유도를 위한 벌꿀과 밀납 등을 원료로 만든 조성물을 면으로 된 실끈에 묻혀 제작한 것이다. 훈연제 또한 리모넨, 식용미네랄오일(FGMO), 티몰 등의 주원료에 연기를 발생시키기 위한 질산칼륨을 넣어 만든 조성물을 사각의 투명한 종이봉지에 넣어 제작한 것이다. 그동안 꿀벌응애 방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플루바리네이트나 플루메스린 등의 화학약제로 만든 훈증제가 이용돼 왔으나, 꿀벌응애가 이들 약제에 내성이 생겨 약제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양봉농가에서 친환경 방제방법으로 개미산 및 옥살산 용액으로 만든 훈증제를 이용하고 있으나 제조시 산함량 조절이 어려워 꿀벌이 죽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꿀벌응애 방제용 친환경 훈증·훈연제는 이러한 기존의 꿀벌응애 방제의 단점을 보완해 자주 써도 내성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꿀벌에 피해를 주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양봉농가 보급시 연간 10억원 이상의 수입단체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최용수 연구사는 “양봉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꿀벌응애는 연중 방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해충”이라며, “이번 친환경 방제 약제 개발로 양봉농가의 꿀 생산성을 높여 농업소득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브·도나희·a1@livesnews.com

양록

한국양록협회, 제 19회
“2011 우수사슴 선발대회”
개최



(사)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는 제 19회 “2011 우수사슴 선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42농가 108두가 출품됐으며 생산량뿐만

아니라 조기절각을 통해 고품질의 녹용을 생산한 농가도 다수 참가했다.

108두 출품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제19회 2011년 우수사슴 선발대회의 대상은 한진사슴곰농장(대표 한의석)의 한진15호가 차지했다. 한진사슴곰농장의 한진 15호는 총 생산량 22.58kg으로 올해 출품 사슴 평균 생산량 16.48kg을 크게 웃돌았으며 생산량뿐만 아니라 나머지 심사목록에서도 골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종합평점부문, 녹용외관부문, 각관분지부문, 상대비율부문, 생산량부문, 꽃사슴부문 등 6개 농가에서 수상했다.

오늘 대회에는 농식품부 노수현 축산경영과장을 비롯해 각 생산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우수사슴선발대회를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한국양록협회 제공